



〈2017 거리예술마켓_문화비축기지〉
전문가 가이드북

목차

1. 행사소개 3P
2. 전문가·네트워킹 프로그램 4P
3. 부스 참가 단체 소개 9P
4. 공연·기획 프로그램 16P
5. 일정표, 사이트맵 26P
6. 전문가 현장등록 안내 29P
7. 오시는 길 및 문의 30P

2017
거리예술마켓
-문화비축기지
전문가 가이드북

1. 행사소개

2017 거리예술마켓_문화비축기지

일정 : 2017. 8. 25(금) - 26(토)

장소 : 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한국거리예술협회

협력 : 문화비축기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거리예술마켓은 국내 우수한 거리예술작품들을 소개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형 아트마켓입니다. 2017년에는 5회째를 맞이하여 문화비축기지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합니다. 거리예술 창작자와 전문가, 시민이 다함께 만나는 장으로 올 해에도 공연프로그램 15개의 작품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5개 작품,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리예술 || 공연

거리예술×포커스 :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선보이는 거리예술 공연(9작)

거리예술×패밀리 : 웃음과 카타르시스, 심과 여유를 주는 유희형 거리예술 공연(6작)

거리예술×커뮤니티 : 참여형 거리예술과 시민 워크숍 프로그램(5작)

거리예술×기획전시 : 한국거리예술의 흐름과 현주소를 소개하는 기획전시

거리예술 || 마켓부스 *

마켓부스 전시 : 거리예술 작품, 단체와 기관 등을 알리는 홍보부스

네트워킹 공간 :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

거리예술 || 학술 네트워킹 *

마켓포럼 : 거리예술과 마켓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학술 행사

피치세션 : 스피치로 보는 거리예술, 신작 소개 및 작품 정보 안내

쇼케이스 : 10분만에 보는 거리예술, 작품 시연 프로그램

거리예술 전국구토크 : 거리예술에 대한 시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난상토크

개막 리셉션, 루프탑 파티 :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파티

*표시가 있는 프로그램은 등록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라면 마켓 기간 중 문화비축기지 내 T2 입구에서 현장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네트워크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장소	내용															
마켓포럼	8월 25일 (금) 14시 30분 - 15시 30분	T2 실내	<u>거리예술마켓의 발자취</u> 2013년 ‘거리예술장터’로 소박하게 시작한 거리예술마켓이, 지난 3년간(2014~2016) 선유도 시대를 넘어 문화비축기지로 장소를 옮겨 새로운 도약을 시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축제형 거리예술마켓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통해 지난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 : 조동희(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창작센터 팀장) 참석자 : 윤종연(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이란희(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팀장)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김덕희(서울예술단 기획팀장), 김경희(극단 노니 대표) 임인자(독립기획자)															
			<table><tr><th>시간</th><th>내용</th><th>발제/진행</th></tr><tr><td>14:30 ~ 14:35</td><td>장내정리, 포럼 및 발제자 소개</td><td>조동희(사회자)</td></tr><tr><td>14:35 ~ 14:45</td><td>거리예술마켓, 그 성과와 한계</td><td>윤종연(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td></tr><tr><td>14:45 ~ 14:55</td><td>해외거리예술마켓 사례 소개</td><td>이란희(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팀장)</td></tr><tr><td>14:55 ~ 15:25</td><td>전체토론 - 거리예술마켓의 강점과 제언 - 기획자의 시선, 예술가의 시선, 행정가의 시선 - 타 아트마켓과 협력 가능성</td><td>발제자 2인 김경희(극단 노니 대표)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김덕희(서울예술단 기획팀장) 임인자(독립기획자)</td></tr><tr><td>15:25 ~ 15:30</td><td>마무리</td><td>조동희 (사회자)</td></tr></table>	시간	내용	발제/진행	14:30 ~ 14:35	장내정리, 포럼 및 발제자 소개	조동희(사회자)	14:35 ~ 14:45	거리예술마켓, 그 성과와 한계	윤종연(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14:45 ~ 14:55	해외거리예술마켓 사례 소개	이란희(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팀장)	14:55 ~ 15:25	전체토론 - 거리예술마켓의 강점과 제언 - 기획자의 시선, 예술가의 시선, 행정가의 시선 - 타 아트마켓과 협력 가능성	발제자 2인 김경희(극단 노니 대표)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김덕희(서울예술단 기획팀장) 임인자(독립기획자)
시간	내용	발제/진행																
14:30 ~ 14:35	장내정리, 포럼 및 발제자 소개	조동희(사회자)																
14:35 ~ 14:45	거리예술마켓, 그 성과와 한계	윤종연(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14:45 ~ 14:55	해외거리예술마켓 사례 소개	이란희(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팀장)																
14:55 ~ 15:25	전체토론 - 거리예술마켓의 강점과 제언 - 기획자의 시선, 예술가의 시선, 행정가의 시선 - 타 아트마켓과 협력 가능성	발제자 2인 김경희(극단 노니 대표) 최대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지원부장) 김덕희(서울예술단 기획팀장) 임인자(독립기획자)																
15:25 ~ 15:30	마무리	조동희 (사회자)																

오프닝 리셉션	8월 25일(금) 19시 - 20시	T2 실외	거리예술마켓의 오픈 파티 겸 문화비축기지 집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소개하고 만나는 자리																			
루프탑 파티	8월 25일(금) 21시 30분 - 22시 30분	T2 실외	문화비축기지의 T2 루프탑에서 예술가와 전문가가 만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수 있는 마켓의 트레이드 마크 파티																			
거리예술 전국구 토크	8월 26일(토) 14시 - 15시 30분	T2 실내	<u>거리예술 전국구 토크</u> 거리예술은 이제 더 이상 거리예술축제의 것만이 아니다! 점차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리예술. 특히 수도권이 아닌 각 지역에서 거리예술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거리예술에 대한 시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난상 토크! 사 회 자 : 윤종연(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토크참여자 : 엄국천(포항문화재단 문화기획팀 팀장) 조정운(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정연일(천안문화예술의전당 경영기획팀장) 김종원(아시아문화원 어린이사업부) 이예진(좋은공연연구소 소장, 예정) <table><tr><th>시간</th><th>내용</th><th>발제 /진행</th></tr><tr><td>14:00 ~ 14:10</td><td>장내정리, 참석자 소개</td><td>사회자</td></tr><tr><td>14:10 ~ 14:30</td><td>참석자별 거리예술사업 소개, 지역별 현황</td><td rowspan="4">참석자 전체</td></tr><tr><td rowspan="4">14:30 ~ 15:10</td><td>Q.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예술?</td></tr><tr><td>Q.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리예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리예술?</td></tr><tr><td>Q. 우리 거리예술에 대한 아쉬움</td></tr><tr><td>Q. 거리예술 vs 실내공연, 거리예술 기획자 vs 예술가</td></tr><tr><td>15:10 ~ 15:25</td><td>난상토론, 플로어 토크</td><td rowspan="2">사회자</td></tr><tr><td>15:25 ~ 15:30</td><td>마무리</td></tr></table>	시간	내용	발제 /진행	14:00 ~ 14:10	장내정리,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 ~ 14:30	참석자별 거리예술사업 소개, 지역별 현황	참석자 전체	14:30 ~ 15:10	Q.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예술?	Q.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리예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리예술?	Q. 우리 거리예술에 대한 아쉬움	Q. 거리예술 vs 실내공연, 거리예술 기획자 vs 예술가	15:10 ~ 15:25	난상토론, 플로어 토크	사회자	15:25 ~ 15:30	마무리
시간	내용	발제 /진행																				
14:00 ~ 14:10	장내정리,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 ~ 14:30	참석자별 거리예술사업 소개, 지역별 현황	참석자 전체																				
14:30 ~ 15:10	Q.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예술?																					
	Q.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리예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리예술?																					
	Q. 우리 거리예술에 대한 아쉬움																					
	Q. 거리예술 vs 실내공연, 거리예술 기획자 vs 예술가																					
15:10 ~ 15:25	난상토론, 플로어 토크	사회자																				
15:25 ~ 15:30	마무리																					

문화비축기지 투어 프로그램	8월 25일(금) 14시 - 14시 30분, 8월 26일(토) 13시 30분 - 14시	문화비축기지 일원	문화비축기지의 전반적인 공간과 운영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1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신청 순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전문가등록부스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합니다.				
피치세션	8월 25일(금) 16시 - 17시, 8월 26일(토) 16시 - 17시	T2 실내	- 스피치로 보는 거리예술, 신작 소개 및 작품 정보 안내 <table><tr><th>8월 25일(금)</th><th>8월 26일(토)</th></tr><tr><td>연희집단 The 광대 예술불꽃 화랑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유상통프로젝트 팜시어터</td><td>극단 느릿 거짓말 극단 문 배낭 속 사람들 살거스 창작그룹 노니</td></tr></table> - 상세내용 별첨	8월 25일(금)	8월 26일(토)	연희집단 The 광대 예술불꽃 화랑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유상통프로젝트 팜시어터	극단 느릿 거짓말 극단 문 배낭 속 사람들 살거스 창작그룹 노니
8월 25일(금)	8월 26일(토)						
연희집단 The 광대 예술불꽃 화랑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유상통프로젝트 팜시어터	극단 느릿 거짓말 극단 문 배낭 속 사람들 살거스 창작그룹 노니						

<별첨- 피치세션>

단체/작품명	내용	단체/작품명	내용
① 예술불꽃 화(火.花)랑 <불의 노래- 프롤로그>	<불의 노래>는 2년간에 걸쳐 2부작으로 구성된다. 불을 사용하는, 불을 업으로 삼는, 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부 <불의 노래 -프롤로그>에서는 재래식 대장간을 배경으로 대장장이의 삶과 직업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모습, 직업의 의미, 노동의 의미,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② 살거스 테러블 칠드런	불을 주된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8막으로 구성된 파이 어극이다. 미스터리한 방에 갇힌, 3명의 아이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한편의 책으로부터 가이드를 받으며, 그들만의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 이들을 과연 이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공간의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우주인가?

③ 연희집단 the 광대 the 광대 단체 레퍼토리 소개	연희극을 만들기 위해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의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체이다. 개개인이 연희의 명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광대의 모습을 정립해 나아가고자 한다. 서민들과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옛날 광대들의 예술과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그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④ 유상통 프로젝트 청소반장 유상통3	청소반장 유상통과 지랄꾼들이 몰려온다. 환경(재활용)과 오브제 그리고 광대난장, 음악퍼포먼스가 만났다. 공연 안에 환경 운동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신개념 거리극, 재활용오브제, 인형과 창작음악으로 함께 지구를 말하는 신개념 복합예술공연이다.
⑤ 팜시어터 달콤한 나의 집	“배낭이 집으로, 쇼핑카트가 집으로,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집과 집터를 사이에 두고 노숙자와 비둘기의 성향을 결합한 노둘기라는 인물 1,2와 건물주 간의 한바탕 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러나 매우 유쾌한 작품이다.	⑥ 극단 느린 거짓말 약장수	시골 장터에 약장수가 나타났다. 약장수가 파는 약은 1알을 먹으면 5년이 젊어지는 약. 약장수가 수다스럽게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고 약사가 사람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젊어지고자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준다. 그리고 재주넘는 원숭이는 웃음을 준다. 이렇게 장터에서 약장수 무리를 만난 이들은 모두 젊어진다.
⑦ 배낭속사람들 워크	반복되는 생활패턴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을 가기까지 여정을 다룬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간다. 표정을 갖고 태어났지만 점점 잃어가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한 표정으로 기계처럼 일을 한다. 현대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오브제와 몸을 통해 표현해내는 작품이다.	⑧ 예술창작공장 코마앤드 해피한 하루	“미운 아기 오리는 나였어!” 엄마 찾아 떠나는 강아지 해피의 엉뚱발랄한 모험을 다룬 어린이 뮤지컬이다. 진짜 엄마를 찾아 떠나는 강아지 ‘해피’와 절친한 친구 고양이 ‘예롱’과 비둘기 ‘구구’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⑨ 창작그룹 노니 기억하는 사물들	공간의 기억을 압축하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물들. 관객들은 공간을 탐색하며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 간다. 공간에 남겨진 사물들은 각각의 소리와 움직임을 가진다. 순간 나타나는 몸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던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시켜 과거 기억의 시간이 아닌 지금의 시간으로 끌어낸다.	⑩ 극단 문 장례동아리 데스매치	극단 문(theater Moon)은 미술작가 임은주와 드라마 작가 정진세, 프로듀서 정산희를 축으로, 배우와 연출,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프로덕션을 꾸리는 컬렉티브형 연극-창작팀으로, 신작을 통해 극단 문 스타일의 관객체험형 거리극을 선보인다.



3. 부스참가단체 소개

- 일시 : 8.25(금) - 26(토) 15:00 - 18:00
- 장소 : 문화비축기지 내 T2(실내)
- 참가단체 : 공연단체 및 축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 34단체

단체명	단체소개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비주얼씨어터 꽃’의 멤버였던 김진영이 2008년에 만든 단체로, 목소리를 주된 매체로 해서 연극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창작 발표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몸을 올리는 진동으로서의 목소리가 창작의 전 과정을 이끄는 주된 예술재료이면서 동시에 몸과 맘을 연결하는 치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에서 작품을 창작, 공연하며, 또한 보이스테라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영	유지영은 신체의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안무를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작업으로는 ‘인체도’, ‘신체퍼즐’, ‘낮선, 몸’, ‘그래야만 한다’,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계속해서 몸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서울괴담	서울괴담은 현대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극단이다. 밀폐된 극장을 벗어나서 거리 또는 특정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창작과 공연을 통하여 소외된 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추어진 이슈에 주목한다.
박진아	시베리아 여행 중 ‘자연에서 인간본성회복’을 경험한 후 작품을 통해 ‘자연에 돌아가고 싶다’는 영감을 나누고 있다. 하나의 영감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회화, 설치, 무대, 음악, 미디어 등 다양한 작업이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 협업한다. 아티스트 간의 교류를 통한 공동창작, 공간을 느끼며 만드는 현장창작, 관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관객 참여형 예술 등을 지향한다.
이대열	이대열은 2013년부터 거리예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요요퍼포먼스 그룹 요요현상의 공동대표였으며 ‘시간낭비 요요쇼’, ‘시간여행 요요쇼’, ‘지름 3미터 요요쇼’를 공동연출하고 직접 공연했다. 현재는 ‘줄로 하는 공연 <점>’을 통해 독립공연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에 있는 연극학교 ‘Ecole Philippe Gaulier’에서 공부했다. 가벼운 형식 속에 진중한 마음을 담은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

살거스	'살거스'는 멤버 개개인의 영감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융합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무경계예술단체이다. 프랑스, 일본, 한국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단원 각각의 예술적 재능과 경험을 살려, 연극 및 저글링, 무용 및 마임의 장르를 복합시킨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형태를 만들고 있다. 오브제 묘기, 아름다운 동작, 극적인 스토리가 가미되어 매회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제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엠제이카니발	2012년 호주에서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한국의 고양호수예술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에 출연하였으며 현재는 국내 유일의 도박꾼 콘셉트로 관객들과 함께 도박과 돈을 주제로 교훈 있는 공연을 하고 있다. 풍부한 거리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의 소통 있는 공연에 능통하다.
팀클라운	팀클라운은 즐거운 공연을 배달하는 광대들이다. 즐겁고 유쾌한 새로운 형태의 거리쇼 창작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껌떡' 놀라는 웃기는 쇼를 만들고 싶어하는 광대팀이다.
봉앤줄	서커스 창작 집단 <봉앤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안재현"에 의해 창단 되었다. <봉앤줄>은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기에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해 '헤테로토피아' 구현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외	프로젝트 외(Project WAE)팀은 2010년 젊은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프랑스 거리무용단체와 함께 제작한 거리무용극 '날뽕(NalBoa)'를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거리무용단체이다. 세운상가 골목길,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역 284카페 등의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축제에서의 커뮤니티작업, 다국적 협업방식을 통해 거리 및 여러 특정 공간에서 역동적인 춤으로 장소 특정형 거리무용극을 만들고 있다.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탈극장 연극을 지향하는 단체 이다. 자기서사(Self-Narrate)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연극을 창작하고 장소맞춤형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조명이나 무대장치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더 가까운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고자 한다. 큰 덩치로 육중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작지만 섬세한 이야기들로 민첩하게 관객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관객과 함께하는 유쾌한 고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이모멘트	아이모멘트는 신체극, 무용, 전통연희의 배경을 가진 세 명의 예술가가 모여 만든 단체이다. 거리극, 무용, 장소특정형 공연,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시도하며, 오브제와 몸짓언어를 통해 다양한 관객들과 소통하는 젊은 거리극 집단이다. 지금 이순간과 우리 모두의 기억이 만나 일상을 반전시키는 예술이 되며, 일상 속 다양한 기억 들은 오브제와 몸짓을 통해 다시금 환기되고, 관객들과 현재를 공감, 위로해주는 작품을 창작하려 한다.
악단광칠	악단광칠은 광복 70주년인 2015년 창단되었다. 옛 황해도 음악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음악을 만든다. 우리의 옛 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네 삶의 음악이면서 위로의 음악을 연주하고자 한다. 악단광칠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지금, 여기 사람들과 공명하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一)가 된다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다.
조성아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관심과 실험을 모토로 형식에 대한 경계 없는 작품 활동에 방향성을 두고 있는 창작그룹이다.
랄랄라	이름만 불러도 즐겁고, 즐거울 수 있는, 즐겁고 싶은 랄랄라는 말의 중의적인 의미를 살리는 작업을 즐겨한다. 작품으로는 <돈키혼자> <4랑이야기> <작은 나무이야기> <생각났어! 생각났어!> <변화>가 있다. 현재 독립공연예술가로, 달과아이극단 배우로 활동 중이다.
김찬수마임컴퍼니	김찬수마임컴퍼니는 2008년 창단되어, 마임,저글링, 광대, 서커스, 무언극으로 거리 및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으며 국내외 거리극축제, 마임축제에서 관객과 거리를 좁히며 년별 및 마임, 광대극의 저변확대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공작소365	공작소 365는 야외극 공연단체이다. 2007년 각기 다른 예술적 배경을 지닌 멤버들이 배우의 신체적 언어에 집중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영상, 음악, 오브제와 배우의 신체를 결합하여 연극적인 상황을 다채롭게 만들어나간다. 음악과 시, 무용을 가미한 공연은 전 연령대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움직임분석그룹	움직임 분석그룹은 2015년 모다페 스파크 플레이스에서 <여자의 식탁>으로 무용계에 데뷔한 현대무용가 권선화가 창단한 그룹으로, 매 작품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작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리듬감 있는 춤으로써의 접근보다는 좀 더 큰 범주의 '움직임(movement)'을 매개체로 하여 관객들과 의 소통 혹은 교감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며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프로젝트XXY	Project XXY는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디자이너, 연출, 기획, 드라마터그, 안무가, 배우들이 모여 모든 가능성을 열고 공동창작을 하는 팀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본 적 없었던 사람, 요즘들이 고민이 시작된 사람, 새로운 정체성의 언어를 획득한 사람 등이 모여 모든 의심과 고민을 열어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장과 탈극장, 언어와 움직임, 전시와 관객 참여 공간 등을 넘나드는 열려있는 공동창작을 지향한다.
창작그룹 노니	2006년 무대미술, 전통 연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한국 연희 미학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창작그룹노니는 전통 연희, 미술, 음악 세 유닛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와 창작을 실험, 확장하여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과 물질, 몸의 운동성(키네틱) 미학에 집중하여 공간과 오브제에 대한 탐색과 ‘파쿠르’와의 협업을 통한 장소 특정형 작업을 하고 있다. <기억하는 사물들>은 노니의 장소, 공간 특정형 작업 가운데 하나로 공간의 기억을 압축하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물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펼쳐낸다. 관객들은 공간을 탐색하며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 간다. 공간에 남겨진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소리와 움직임을 가진다. 순간 나타나는 몸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던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시켜 과거 기억의 시간이 아닌 지금의 시간으로 끌어낸다.
조금 다른	‘조금다른’은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교육기획, 문화기획팀으로서 2016년 10월에 결성되었다. ‘조금다른’은 지구 위에 살고있는 모두가 차별 없이 각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 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유쾌하고 재미있기 위해서 더욱 노력한다. 현재는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인 <조금다른운동회>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다양한 문화들과 교육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변화시키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노니 논다	노니논다는 어른들의 놀이문화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단체이다. 술, 영화, 공연관람 등 기존의 수동적인 놀이문화에서 벗어나서 뛰어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문화의 개발 및 전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 (작은따옴표)	우리나라, 세계가 가진 사회 문제를 문화, 예술로 풀어내는 청년 문화예술혁명 단체 ‘ ’ (작은따옴표)에서 진행하는 친환경문화예술프로젝트 ‘ARTRASH’이다. ‘ARTRASH’란 ART와 TRASH의 합성어로 돈 대신 길거리 위 쓰레기를 화폐로 대체하여 사람들이 길거리 위 쓰레기만 주워와 쓰레기통에 버리면 많은 것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연희집단 The 광대	연희극을 만들기 위해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의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이다. 연희집단 The 광대는 멤버 개개인이 연희의 명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광대의 모습을 정립해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옛날 광대들의 예술과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그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무언가 알려야 하고, 문제될만한 것들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작 집단이다. <청소반장 유상통3>은 환경운동과 연극, 오브제 그리고 창작음악을 결합한 신개념 음악극이다. 재활용오브제와 광대난장 그리고 음악퍼포먼스가 만났다. 공연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신개념 거리극이다.
팜시어터	팜 시어터는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삶을 노래하는 창작 집단으로서, 자연과 인간, 삶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비추어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과 가치를 보게 하고 일상의 변화를 갖도록 돕는다. “몸으로 쓰는 시”라는 화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달콤한 나의 집>은 집과 집터를 사이에 두고 노숙자와 비둘기의 성향을 결합한 이들과 건물주 간의 한바탕 소동을 다룬 작품으로, 이 시대에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채치 있는 공연자들의 몸짓,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과 효과음이 공연 전반에 어우러져 유쾌하게 즐기며 볼 수 있는 공연이다.
극단 느릿 거짓말	극단 느린 거짓말은 어떻게 하면 허구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허구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구상 중인 극단이다. 거리에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 혹은 실내에서의 소규모 공연을 지향한다. 단순히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낸 뒤 그것을 새로이 만들어낸 허구와 잘 결합하고자 한다. 시골 장터에 약장수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든다. 약장수가 파는 약은 바로 1알을 먹으면 5년이 젊어지는 약! 약장수는 약장수가 수다스럽게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고 그의 곁에서 약사가 사람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젊어지고자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준다. 그리고 재주넘는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이렇게 장터에서 약장수 무리를 만난 이들은 모두 젊어진다.
배낭속사람들	배낭속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배경을 찾아 전반적인 소재와 주제를 통해 인류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2009년부터 작품으로 구성해왔다. <워크>는 반복되는 생활패턴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을 가기까지 여정을 다룬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간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시작하고 사회라는 조직에서 살아간다. 표정을 갖고 태어났지만 점점 잃어가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한 표정으로 기계처럼 일을 한다. 짧은 휴식은 달콤하지만 그 이후의 업무와 스트레스는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화로 변한다. 우리는 나 자신과 외로운 싸움을 하며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린다. 현대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오브제와 몸을 통해 표현하고, 우리의 상상하는 꿈의 공간도 표현한다.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	예술창작공장 Comma, And는 '쉼표, 그리고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사회와 개인의 모습과 관계를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며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체이다. 관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혀 소통을 하고자 대안 공간을 통해 장르를 융·복합하며 창작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해피한 하루>는 엄마 찾아 떠나는 강아지 해피의 엉뚱발랄한 모험 이야기이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친구들과 함께 매일 신나는 하루를 보내던 강아지 '해피'. 절친한 친구인 고양이 '예룡', 비둘기 '구구'와 집 앞 마당에서 신나게 놀던 해피는 옆집 강아지 가족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엄마와 외모가 닮지 않은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진짜 엄마를 찾아 가출을 결심한다. 과연 해피는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극단 타쇼	퓨전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이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작용인 것이다. 전통타악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세련된 무대와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단아한 아리랑의 선율과 다이내믹한 타악 리듬이 만나는 무대, 세상만물을 두드려 깨울 듯한 웅장한 생명의 울림이 북소리 하나하나에 담겨있다. 전통풍물과 현대음악의 조화, 화려한 LED퍼포먼스와 시원한물줄기, 그리고 불꽃의 향연은 시종일관 관중의 시선을 장악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유관 기관으로 2017년 5월 현재 전국 204개 문화예술회관이 회원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균형적인 발전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유통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목표로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예술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게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경영과 국제교류의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일상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공식초청작과 자유참가작으로 이루어진 국내외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축제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들은 대도시 서울을 친근하고 즐거운 공동체로 기억합니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주로 서울의 공간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거리예술 공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해 안산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거리예술축제입니다.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로서의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예술작품 소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위한 공간인 「안산공연창작센터」와 제작 지원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리예술협회	한국거리예술협회(구, 한국거리예술센터)는 거리예술단체 및 기획자들의 교류와 협력이 역할을 하는 네트워킹 허브로서, 동시대의 거리예술을 함께 고민하며 거리예술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젊고 실험적인 예술단체의 발굴, 관련 문화정책 개발 및 실행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한다.

4. 공연·기획 프로그램

○거리예술×포커스 :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선보이는 거리 예술 공연

공연 거리예술×포커스	공연 거리예술×포커스	공연 거리예술×포커스
		
프로젝트외 <빨리빨리2017> 출퇴근길, 등하교길, 우리는 수많은 교복 입은 또 는 넥타이를 맨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보고 그 무리에 섞여 정신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왜, 무엇 을 위해 모두 함께 ‘빨리빨리’를 외치는가? 질문을 던지는 장소특정형 무용극 #무용 #이동형공연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잡온론(Job on Loan)>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생활. 돈을 벌면서 도 빚을 낼 수밖에 없고, 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서민들의 삶. 그럼에도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 야기 #특정공간극 #연극 #다큐멘터리	아이모멘트 <고백 : go back> 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억에 붙잡혀 과 거에 머물 것인가. 두 사이의 갈등과 고민을 움직 임과 이미지로 표현하고, 벤치와 가방을 이용하여 머물려고 하는 자와 떠나려는 자 사이의 충돌과 파장을 몸짓으로 그린다. #신체극

공연 | 거리예술x포커스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도시소리동굴>

도시의 서로 다른 소리반향을 품고 있는 공간들을 이동하며 공연되는 장소특정형 보이스공연이다. 전자음을 배제하고 오로지 육성만으로 공간을 울리며 소리의 파동과 공간의 에너지가 만났을 때 피어나는 섬세한 공명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오브제극 #특정공간극
#참여형 #보이스퍼포먼스

공연 | 거리예술x포커스



유지영
<인체도>+<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인체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서 '노트북'의 일부인 인체비례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인체의 비례와 균형,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점 선 면 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다빈치의 인체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위에 덧입힌 새로운 나의 인체도.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라고 배우며 이와 같은 지칭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왜 신체 부위의 이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여긴 몸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의문을 제시한다.

#무용 #신체극

공연 | 거리예술x포커스



서울괴담
<성북동81번지>

도시에서 평생을 자기 몸처럼 애지중지하며 가꾸어 온 집이 재개발에 의해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에 놓인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의 삶은 '집 안과 집밖'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 안의 보이지 않는 삶을 집 밖의 거리로 꺼내 놓고, 집을 둘러싼 도시인들의 비애를 이야기한다.

#인형극 #마음 #오브제극

공연 | 거리예술×포커스



조성아
<Ring the Bell(링더벨)>

덩그러니 홀로 방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박스 한 대. 갑자기 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 그 소리를 따라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모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각자 다른 소통의 기억들은 서로 얹히며 상황들을 유발시킨다.

#특정공간극 #이동형공연

공연 | 거리예술×포커스



봉앤줄
<나, 봉앤줄>

서커스 기예인 차이니즈 폴(Chinese Pole)과 드라마가 있는 움직임 그리고 민요를 접목시킨 컨템포러리-서커스(Contemporary Circus) 공연으로 험뎀은 채로 6미터의 쇠봉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봉을 이용해 어디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컨템포러리서커스

공연 | 거리예술×포커스



악단광칠
<복을 파는 유랑악단 악단광칠>

이북지역의 굿의 여러 거리(찐)를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공연이다. 멤버들은 스스로 무녀가 되어 짝 짝하고 고단한 삶 속에 여러 애환들을 보듬어 주고, 염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빌어주며 관객들과 소통한다.

#전통예술 #음악

○거리예술×패밀리 : 웃음과 카타르시스, 쉽고 여유를 주는 유희형 거리 예술 공연

공연 거리예술×패밀리	공연 거리예술×패밀리	공연 거리예술×패밀리
		
박진아 <자고가요 Vol.1 본격 누워 듣는 음악회> 그대, 하늘을 본 적은 언제인가요? 매일 바쁜 일상에 지치진 않았나요? ‘Vol.1 본격 누워 듣는 음악회’에서는 설치물, 음악 그리고 시(詩)가 함께한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자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퍼포먼스이다. #음악 #시각예술 #참여형	이대열 <줄로하는공연 점(●)> 모든 가능성은 잘리면서 열린다. 실뜨기부터 인형극까지 줄로 다 하는 공연 <점(●)>. 줄을 활용한 다채로운 장면을 통해 탄생과 성장, 연결과 끊어짐, 새로운 가능성 속의 환희와 두려움 등의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오브제극 #인형극 #참여형	살거스 <울프썬> 연극과 파이어퍼포먼스가 교묘하게 결합된 ‘울프썬’ 늑대의 태양은 스팀펍크의 분위기와 함께 관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관객들의 선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참여형 복합퍼포먼스이다. #파이어퍼포먼스

공연 | 거리예술x패밀리



**랄랄라
<변화>**

변화 없는 나라에 입으로 밥을 먹고 입으로 똥을 싸는 사람들이 있다. 한입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느라 바쁜 그들은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똥의 변과 변할 변의 변. 동음이의어를 모티브로 배우의 움직임과 작은 오브제가 만나 기타반주에 맞춰 들려주는 이야기.

#오브제극 #연극

공연 | 거리예술x패밀리



**엠제이카니발
<신의 야바위>**

국내 유일의 도박꾼 컨셉트로 관객들과 함께 도박과 돈을 주제로 교훈 있는 공연을 하고 있다. 마술적인 요소와 악인의 컨셉트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동시에 도박의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공연이다.

#마술 #참여형

공연 | 거리예술x패밀리



**팀클라운
<경상도 비눗방울>**

경상도스러운 경상도 스타일의 비눗방울, 경상도처럼 생긴 비눗방울에 희망을 담아 이야기한다. 마틸다를 찾는 레옹을 컨셉으로 마임, 비눗방울, 사투리, 저글링을 하며 마틸다가 오기를 기다린다. 쇼가 끝난 후 쇼박스를 타고 마틸다를 찾아 떠난다.

#마임 #저글링

○거리예술×커뮤니티 : 참여형 거리예술과 시민 워크숍 프로그램

공연 거리예술×커뮤니티	공연 거리예술×커뮤니티	공연 거리예술×커뮤니티
		
창작그룹 노니 <G.ROUND 둥글게 둥글게> 커뮤니티의 참여 방식과 예술 창작 방법론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문화비축기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커뮤니티 공연프로그램이다. 익숙한 ‘공’ 오브제와 놀이를 접목한 가족참여형 커뮤니티 창작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된 예술적 경험, 가족간 소통과 화합을 경험한다. * 본 프로그램은 '문화비축기지 2017년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선정작'입니다.	녹녹 <바디퍼커션 워크숍 “힙하게 탭”> <힙하게 탭>은 남녀노소 누구나 몸만 오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워크숍으로 몸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바디 퍼커션 연주를 쉽게 배워 보게 한다. 바디퍼커션은 몸과 타악기의 합성어로 몸을 두드려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워크숍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악기인 셰이커, 리코더부터 쉽게 접하기 힘든 허디거디, 다르부가 등 다양한 악기들과 바디퍼커션의 협주를 통해 풍성한 하모니를 경험하게 한다.	조금다른 <조금다른운동회> 조금다른운동회는 장애인들이 즐기는 운동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색다른 운동회로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우리와는 다른 장애인들의 여러 환경을 쉽고 명확한 운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감해본다. 다르다는 이유,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놀이로 뒤섞이기를 제안한다.

공연 | 거리예술x커뮤니티



노니논다

<노니논다 놀이마당>

노니논다는 어른들의 놀이문화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기존의 수동적인 놀이문화에서 벗어나서 뛰어 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문화의 개발 및 전파를 목표로 모바일, 온라인, 보드게임으로 즐기던 쉽고 재미있는 게임들을 거리에서 즐기게 한다.

공연 | 거리예술x커뮤니티



‘ ’(작은 따옴표)

<친환경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래쉬”>

우리나라, 세계가 가진 사회 문제를 문화, 예술로 풀어내는 청년 문화예술혁명 단체 ‘ ’(작은따옴표)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래쉬이다. 아트래쉬란 ART와 TRASH의 합성어로 돈 대신 길거리 위 쓰레기를 화폐로 대체하여 사람들이 길거리 위 쓰레기만 주워와 쓰레기통에 버리면 많은 것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젝트이다.

○거리예술×쇼케이스 : 10분만에 보는 거리예술, 작품 시연 프로그램

공연 거리예술×쇼케이스	공연 거리예술×쇼케이스	공연 거리예술×쇼케이스
		
공작소365 <팬피터>	김찬수마임컴퍼니 <블랙클라운>	살롱시소 <썸머무비 : 더 키드>
누구나 아는 동화 ‘피터팬’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으로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의 기억을 잃은 피터와 그 기억을 다시 찾길 바라는 웬디의 이야기를 그린다. tight wire(줄타기)와 chinese pole(봉을 타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무용적 움직임을 생동감 있는 라이브 연주와 함께 진행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친절한 광대는 사라졌다. 블랙 클라운은 항상 불만이 가득해 툭툭거리며 관객을 괴롭히고 장난친다. 여러 가지의 단막극 형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한다. 공, 디아블로, 셰이크컵, 시가박스등의 저글링과 요술풍선, 외발자전거등 관객참여의 놀이형식으로 풀어, 쉽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서커스 광대극이다.	수원을 기반으로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한다. 찰리채플린의 영화 ‘The Kid’를 살롱시소의 새로운 음악으로 채워간다. 채플린의 표정과 몸짓, 주인공 아이의 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음악을 만나 생생하게 전달되는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 거리예술x쇼케이스



움직임 분석그룹
<흰-공간의 탐구>

친구의 부고소식을 듣고 찾아간 빈소에서 검은 양복, 검은 정장, 검은 상복들 사이에서 영정사진으로 남아있는 그의 웃는 얼굴과 하얀 국화꽃이 보였다. 강렬히 각인되어버린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흰색 컬러'가 가진 이미지들에 대해 몸으로 표현해낸다.

공연 | 거리예술x쇼케이스



프로젝트XXY
<젠더트랜지션>

광장 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좌표가 놓여있다.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x 축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y축에는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모든 가능성을 말하는 움직임과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에 관한 독특한 형식의 씬들이 번갈아 공연된다.

○기획·협력 프로그램

기획·협력 프로그램	기획·협력 프로그램	기획·협력 프로그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결합하여 한국 거리예술의 역사와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동형 전시 프로그램. 거리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한국 거리예술의 발자취 및 현재의 발전상, 세계 축제 속 거리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한다. *기획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기획프로그램 <비밀기지> 한때 석유를 비축해 놓던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알던 곳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든 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은 이제 비밀기지이다. 어찌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비밀스러운 공간, 비밀기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쉼은 얼마나 달콤한가! 은밀한 방식으로 공간이 건네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이곳에 머무른다. 비밀기지는 문화비축기지 내 총 4개의 공간을 아우르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오브제들로 이전에 없던 공간을 만들어 내거나, 보이지 않던 공간을 들추어내고, 곳곳에 어찌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우기면서 공간을 천천히 음미하게 한다. * 제작/디자인 _HK엔터프로, 협력_문화비축기지	 행화탕 <행화커피, 행화맥주> 행화탕은 1958년 아현동에 지어진 대중목욕탕으로 2007년~2011년 중 목욕영업 종료 후 2015년까지 유희공간이었다가 2016년 문화예술콘텐츠랩 축제행성이 운영하면서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예술로 목욕합니다'를 모토로 2016년 5월 15일 예술 목욕영업 개시, 마음의 때를 미는 예술 공간으로서 예술과 목욕에 관련해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를 복합적으로 구축 중이다. 2017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예술로 목욕하는 날'을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거리예술마켓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행화탕을 대표하는 커피와 수제 맥주를 엄선하여 판매한다.

5. 일정표, 사이트맵 *일정과 장소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정표

8.25(금)	데크1 1번탱크옆/ 나무데크	데크2 + 문화마당/ 나무데크	탱크1 파빌리온/ 복도	탱크 2 실내/실외			탱크 6-2층 로비	탱크 3 앞 광장	탱크 3-4 사이 길	탱크 4	탱크 5	탱크 4-5 앞 광장	
14:00				비축기지 투어1									
14:30		비밀기지 (시민쉼터)		마켓포럼									
15:00					마켓 부스	아 트 래 쉬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노니 논다
15:30							흰-공간의 탐구 (20')				변화 (35')		
16:00	경상도 비눗방울(30')			피치 세션1				고백(25')					
16:30											블랙크라운 (20')		
17:00			바디퍼커션 녹녹(60')				팬피터(10')	나, 봉앤줄(25')					
17:30													
18:00	자고가요(45')												
18:30			신의 야바위(30')	빨리빨리2017 (30')			젠더트랜지션 (20')			잡온론(45')			
19:00				오프닝 리셉션 (60')									
19:30													
20:00	악단광칠(30')							인체도 +신체부위(25')			도시소리동굴 (35')		
20:30			줄로하는 공연 점(25')	링더벨(20') 야외						G. ROUND 동글게동글게 (45')			
21:00				씽더무비(30') 야외				성북동81번지 (30')					
21:30				루프탑 파티(60')									
22:00													

8.26(토)	데크1 1번탱크옆/ 나무데크	데크2 + 문화마당/ 나무데크	탱크1 파빌리온/ 복도	탱크 2 실내/실외			탱크 6-2층 로비	탱크 3 앞 광장	탱크 3-4 사이 길	탱크 4	탱크 5	탱크 4-5 앞 광장	
13:30				비축기지 투어2									
14:00				거리예술 전국구 토크									
14:30							팬피터(10')						
15:00	경상도 비눗방울(30')												
15:30			신의 야바위(30')										
16:00				피치 세션1	마켓 부스	아트 래쉬		나, 봉앤줄(25')					
16:30							흰-공간의 탐구 (20')					블랙크라운 (20')	노니 논다
17:00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17:30	자고가요(45')	비밀기지 (시민쉼터)	조금다른 운동회(90')					고백(25')		G. ROUND 둥글게둥글게 (45')			
18:00							젠더트랜지션 (20')						
18:30												잡온론(45')	
19:00			줄로하는 공연 점(25')		빨리빨리2017 (30')								
19:30							인체도 +신체부위(25')				도시소리동굴 (35')		
20:00								성북동81번지 (30')					
20:30		울프썸(30')											



6. 전문가 현장등록 안내



현장 등록확인

- 일시 : 8. 25(금) - 26(토) 13:00-18:00
- 장소 : 문화비축기지 내 T2(실내)
- 내용 : ID카드 및 전문가패키지 수령

※전문가패키지는 거리예술 디렉토리북, 마켓참가자 리스트, 소정의 기념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사전등록 전문가를 우선으로 배부됩니다.

안내 사항

- 전문가 프로그램은 사전/현장 등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킹 공간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ID카드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유롭고 편안한 등록과 마켓부스 관람을 위해 관람희망 작품 및 프로그램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7. 오시는길 및 문의



문의

2017 거리예술마켓_문화비축기지 사무국

www.streetarts.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57, 3층 1호(문래동3가 54-46)

T. 02-2636-4861 E. streetarts@naver.com

facebook.com/streetartsmarket.kr

전문가초청 PD 신성은 010-2637-4537

문화비축기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661)

|| 버스 ||

- ▷ 710 : 월드컵경기장서측 문화비축기지 정류장 하차
- ▷ 712, 7016, 7711 : 월드컵경기장북측 정류장 하차
- ▷ 271, 7733, 7011 : 월드컵공원입구, 문화비축기지입구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 ▷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서 14분 도보로 이동

|| 자가용 ||

- ▷ 네비게이션에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661)로 검색

*비축기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니 대중교통 혹은 인근 주차장(월드컵경기장,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비축기지는 산업유산 재생과 석유비축탱크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조성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기존 5개의 탱크와 새롭게 신축한 1개의 탱크가 공연장,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9월 정식 오픈 전, 거리예술마켓으로 처음 선보입니다.